

- 본문 : 에베소서 6장 14~17절
- 제목 :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이기려면 싸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전신갑주를 다 갖추어야 한다. 보호용 갑주에 이어 공격용 무기로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당신의 성경지식은 얼마나 예리한가?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마귀의 줄개들이 당신을 유혹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란하게 휘둘러 수 있는가? 마귀가 직접적으로 대항하여 싸움을 걸어올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싸워왔는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 사용된 말씀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로고스”가 아니다. “레마”인데, 이것은 성경을 읽거나 배우다가 특별히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의미한다. 성령이 눈을 열어 보게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친히 깨달은 진리는 큰 힘을 가진다.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셨는가를 살펴보자.

* 마태복음 13:3~7

* 마태복음 4:1~11

2.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당신에게 “성령의 검”, 즉 “레마”가 되고 있는가? 성령이 깨닫게 하신 진리가 적을 무찌르는 말씀의 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정해진 시간을 구별하여 일정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필요하면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며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칼을 쓰는 훈련은 전혀 하지 않고 화려한 칼집에 꽂힌 칼만 차고 다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은 어떠한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송원교회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공동체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검을 잘 갈고 닦은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필요하면 그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하다. 당신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말씀의 검을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요약표]

적의 공격	영적 무장	핵심 가치
속임수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삶에 주입시키라”
정죄, 비난	의의 호심경	“의를 실천하라” (죄를 짓지 말라)
의심	복음의 신	“복음을 확실히 알라”
유혹, 거짓말, 속임수의 불화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약속, 능력,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라”
마음의 생각	구원의 투구	“마음을 지키라”
직접 대항하여 싸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

